

뱀 같이, 비둘기 같이!

장흥길 ≪ 한국성서학연구소 소장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신약학

연초(年初)만 해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가 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 아래서 겪었던, 전임 대통령의 ‘막말 정치’ 에 혀를 차고 등을 돌린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졌던 이런 ‘장밋빛 희망’ 은, 올해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대통령 취임 초 ‘소고기 파동’ 으로 얼룩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극단적인 이념 대립, 이를 둘러싼 정쟁(政爭)으로 인하여 점점 사라졌으며, 올해 후반기에는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 부실대출’ 로 촉발된 미국 발(發) ‘금융 쓰나미’ 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희망의 색깔이 ‘장밋빛’ 에서 ‘짚빛’ 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런 국내외 상황에서 이 나라의 기독교 선교 상황도, 교회성장의 ‘호황’ 을 누렸던 1970-80년대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때와는 아주 다르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기독교계에 대한 인식 역시도 좋지 않다. 지난해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샘물교회 봉사단의 피랍사건’ 이후로 반(反) 기독교 정서가 확산되어 있고, 기독교계에 대한 비난도 노골화되었으며, 교회의 중직자가 국가의 요직에 있어 오해될 수 있는 ‘종교편향’ 문제가 올바른 검증 없이 기독교

교에 부정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때 현재의 기독교 선교 상황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게 하는 빌미나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만 말할 수 없다. 교회의 집단이기주의, 세속주의, 사회성 없는 피안(彼岸)주의, 교회 지도자 선출의 비리, 이권 다툼과 관련된 교회 분쟁, 교인의 비윤리성, 이단과 사이비의 기성교회 방해 활동 등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기록해야 할 성역(聖域)인 교계가 오히려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며,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으며, 심지어는 세상 법정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때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교회도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때로는 이런 질문을 만나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당혹스럽다. 그렇기는 하지만 세상과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은 세상의 어디에서가 아니라 여전히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그 머리가 되시고 동시에 세상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고 세상에 오염된 지체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그뿐 아니라 '구조선'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다.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지만, 교회의 세속적인 모습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길과 진리와 참 소망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교회의 '자정'(自靜) 능력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이지만 '하나님 나라, 그 자체' 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온전하지 않으며, 교회 역시도 잘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하여 하

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이다. 교회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면, 엄밀하게 말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스스로를 부단하게 돌아보아 자정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인도(信認度)를 속히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는 교회가 그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을 때,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한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지상명령(至上命令)이며(마 28:19-20), 때를 언든지, 못 언든지 항상 힘써야 할 과제(딤후 4:2)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해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작금의 선교 상황에서는 ‘직접 선교’를 하는 것보다, 먼저 교회의 신인도를 회복하고, ‘간접 선교’에 주력하는 것이 선교에 더 실효적이다. 그것이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선교 전략에 관한 예수의 말씀이 지닌 속뜻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의 세상으로 증개하는 올바른 해석학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반(反) 기독교 정서가 나뉠대로 퍼져 있고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상황에서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직접 선교’는 도리어 기독교에 대한 ‘반발지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말로 전하는 ‘직접 선교’는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오히려 ‘문화선교’나

‘사회복지선교’와 같은 우회적인 ‘간접 선교’ 전략이 더 효율적이다. 문화나 사회복지를 통해 선교의 ‘밭’을 개간하는 것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보다 우선적이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곧 가난한 자들, 병자들, 세리들, 창기들, 이방인들 등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신 후에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받은바 하나님 사랑으로써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이웃 사랑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세상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용이 되시는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된 문화를 도구로 삼아 선교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를 통한 선교의 터를 잘 닦아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불황의 터널이 얼마나 길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선교적 상황이 언제 호전(好轉)될 지 말할 수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자세를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여 교회의 ‘정결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무모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문화선교와 사회복지선교를 동반한 ‘실효적 복음 전파’를 위해 ‘뱀같이 지혜로울’ 때이다.

:: 장흥길 성균관대학교(B.C.)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나와 독일 에어랑겐대학교(Dr.theol.)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이며 본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